

호수에 물방울

신 영 철(시인)

물방울 하나가
잠자는 호수를 깨웠다

동글동글 물 위의 파문이
호수의 나무 그림자를 찾느라
까치발 들고 서 있고

앞산은
산 그림자 족대 그물로
나무 그림자를 건지다가
호수에 빠져
물 파문에 개헤엄치고 있네

호수의 정경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물 한 방울이 잠자는 호수를 깨웠다, 물 위의 파문이 까치발 들고 서 있고, 앞산은 나무 그림자를 건지다가 호수에 빠져 개헤엄치고 있네 등의 묘사는 의인화한 비유로 빛나고 있다.

호수의 물방울은 작은 존재지만 잠자는 호수를 깨우고, 나무 그림자를 찾느라 까치발 들고 서있게 하고, 앞산을 호수에 빠져 개헤엄치게 한다. 시인은 사물에 대한 응시로 관찰한 예민한 감각은 상상력을 자극하여 시상을 만들어 준다.

시의 세계는 생활화된 끊임없는 관찰로 자연 속에 묻혀있으면서도 많은 대상들과 마음의 대화를 끊임없이 나누어야 한다. 그로 인해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도록 만들어 내는 일이다.

개에게 정 붙이면

조 흥 제(수필가)

방송에 비치는 집에 눈도 못 뜬 강아지 여섯 마리가 있고, 큰 개들도 있다. 젊은 부부만 사는 집에 개가 여덟 마리가 있다. 매달 개한테 들어가는 돈이 50만원이란다. 그 돈은 남편의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데 부인이 통장을 관리하여 남편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방송에서 알고는 불편한 심기다. 방송만 아니었으면 싸웠을지도 모른다.

요즘은 애완견 시대다. 대한민국에 애완견이 500만 마리 이상 있다. 애완견을 여러 마리 키우는 집도 많다.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데 치료비도 엄청 비싸다. 사람은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만 개 보험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애완견이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데려간다. 세간에 '시아버지가 아프면 요양원에 보내고 애완견이 아프면 병원에 입원시킨다.'는 말이 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진담일 수도 있다. 왜 애완견에 많은 돈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까? 원인은 개는 거스르는 법 없이 주인에게 무조건 순종한다. 거기다 아양을 떨기 때문이리라. 그러니 말 안 듣는 남편보다 낫다.

우리도 개를 많이 길렀다. 방 안에서 조막만한 개를 기른 것이 아니라 대문 옆에 개집에서 사는 큰 개를 길렀다. 해방 후 고향에서 도시로 이사 갈 때 기르던 흰둥이도 따라 왔다. 중개 정도 되었다. 하루 종일 짖랑짖랑 따라 와서는 이튿날 꿈쩍 못하고 마루 밑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그 집은 남의 집 셋방이어서 흰둥이는 우리 곁을 떠났다.

그때는 똥개를 많이 길렀다. 똥개는 재래종이다. 재래종을 똥개라고 부른 것은 애기가 방바닥에 똥을 싸면 엄마는 마당에 있는 개를 '위리, 위리'하고 불렀다. 개는 득달같이 달려와 똥을 맛있게 먹고 기적 바닥을 싹싹 핥아 걸레로 닦으면 깨끗해졌다. 그래서 '똥개'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똥을 치울 필요도 없으니 얼마나 편리한가.

2000년대 들어 상도동에 살 때 옥상에서 재래 종 개를 길렀다. 개집을 마련해 주고 먹을 것은 둥글납작한 누런 사료를 주었다. 놈이 자라자 뭐가 못마땅했던지 나무로 된 제 집을 마구 물어뜯었다.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주어도 막무가내였다. 할 수 없이 시장에 있는 개소주 집에 연락하여 가져가라고 했다. 어느 날 사람이 끈을 가지고 왔다. 옥상에 안내해 주고는 내려와 방 안에서 마음을 즐겼다. 얼마후에 놈의 처절한 소리가 들렸다. 올라가 보니 푸대에 담아 가지고 갔다. 놈의 집을 치우면서 '불쌍하다.'고 위로 해 주었다. 며칠 후 우리 개 가져간 집에서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다. 비닐에 담겨 있는 시커먼 액체 보따리를 들

고 왔다. 놈은 제가 잘못하여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는데, 아무 죄도 없는 사랑하던 개를 죽음의 길로 넘겨 준 가슴 아픈 사연도 있다. 세상을 잘못 만난 탓이다.

한국 전쟁 전에 우리는 덩치가 큰 세퍼트를 길렀다. 이웃에서 젖을 땀 놈을 얻어 왔는데 우리 집으로 오던 날 밤새도록 울어 안고 밤을 새다시피 했다. 이름을 ‘쫘’이라고 지었다. 서양종이어서 서양이름을 지어 주었다. 놈이 자라니 나를 졸졸 따라 다녔다. 공을 던지면 떨어지기 전에 물어 오고, 멀리 있다가도 ‘쫘, 쫘’하고 부르면 한달음에 달려 와 반갑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친구들과 놀 때도 내 주위에서 맴돌다 친구와 다툼이라도 벌어지면 ‘앙’하고 상대방에게 달려 들어 존은 내 보다 가드가 되었다.

어느 날 북한군이 쳐 넘어 와 피란길에 나섰다. 존도 같이 갔다. 배로 강을 건너다 배가 강심에 왔을 때 존은 놀랐던지 후다닥 뛰어 나가 헤엄쳐 갔다. 보름 만에 집에 오니 존은 마을에서 닭들을 잡아먹고 살았다. 우리가 가져 눈은 새빨개져서 반 야생으로 된 놈이 반갑다고 달려들어 앞발을 붙잡고 서서 한참을 울었다. 그렇게 존은 다시 우리 곁으로 왔다.

우리는 도시에서 살아 먹을 양식이 없어 인근 농촌에 있는 큰 누님댁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누님 댁에 가서 살았다. 존도 따라 왔다. 문제는 존이 덩치가 커서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 있다. 그 때 개밥은 먹다 남은 밥에 뜨물을 부어 개죽 그릇에 주었다. 존은 덩치가 커서 한 바게쓰(양동이)를 먹었다.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개가 사람보다 더 많이 먹으니 문제가 되었다.

큰 누님 댁에 있던 어느 날 어머니가 존을 저 사람들에게 끌려다 주라고 하셨다. 동네 사람에게 판 것이다. 나는 싫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계속 재촉하셨다. 형편을 아는 나인지라 계속 버티지 못하고 존의 목에 줄을 매어 그 사람들 손에 넘겨주고는 뒤도 안 돌아 보고 뛰었다. 뒤에서 존의 ‘깨깹’하는 단말마의 소리가 들렸다. 그날 저녁 마음이 아파서 저녁도 못 먹었다. 존을 판 값이 겨우 보리쌀 두 되 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2~3 천원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존을 죽음의 길로 이끌어다 준 때가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한다.

우리 어렸을 때는 애완견이 없었다. 사람도 먹고 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개를 기르다 복날 잡아서 동네잔치를 했다. 그뿐 아니라 폐결핵에 걸린 사람이 개 몇 마리 해 먹으면 완치 되었다. 70년대 연천군에 사는 누님네 동네 청년들은 ‘개계’를 했단다. 매달 한 차례씩 회원들의 집에서 기르던 개를 잡아 몸보신 했다.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애완견이다. 덩치가 크면 잡아먹기라도 하지만 조막만 놈은 그럴 수도 없다. 앞으로도 세월이 좋아져서 잘 살면 애완견은 계속 고깃국에 쌀밥을 먹고 살 테지만 살기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버림을 받는 것이 애완견 신세다. 개를 기르지 않는 사람은 없앨 때의 서운함 때문이라고 한다. 개에게 너무 잘 해 주면 이별할 때 상처를 안겨 준다. 그걸 감안하고 길러야 한다.